

아동의 문제행동 발견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 - 문제행동 조사표의 개발을 중심으로 -

문선화 · 김영호 · 이경남 · 장수한(한국아동복지학회)

I. 문제의 제기와 배경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사회과학이나 교육학에서 다루어져 왔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초점은 대부분 그 행동을 바라보는 성인의 입장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아동의 자신에 대한 관점은 대개의 경우 무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의 행동에 관한 자신의 표현에 대한 기성사회의 무시이기도 하였으나 아동의 위치가 minority/minor였기 때문이었다. 아동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문제나 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의 발견도 아동 자신의 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¹⁾.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아동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동 자신의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제도와 연관된 분야에서 가족 내에서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김현용, 1997, 38-45).

아동의 문제 행동은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점을 지났고 이제는 아동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문제의 내용이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현재는 아동의 성장이나 능력을 종전에 평가하던 지능지수(IQ)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서지수(EQ: emotional quotient), 그리고 나아가 도덕지수(MQ: moral quotient)로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영역을 심리학이나 교육학분야라고 치부하였었다. 그러나 아동의 복지와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인 정서지수와 도덕지수의 개발은 아동복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1) 1990년 UNICEF의 주관하에 개최된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선언과 행동계획의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이 안전하고 사랑찬 환경 속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며...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학교나 그에 관련된 기관에서 아동의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과연 무슨 행동이 어떠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주어지면 이에 대한 해답은 찾기가 힘들다. 1996년부터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7년에 이르러서는 이와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 대한 우려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과연 이들의 폭력행위나 괴롭힘 행위가 자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내적 충동 다시 말하면 학습이나 훈련이 결여된 본능적인 행위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부재한 데에서 또한 문제는 시작된다.

1970년대부터 학급 내에서의 행동조절능력을 상실했거나 과잉행동아동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주어졌고, 1980년대부터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진단이 활발해지면서 단지 주의력 부족이라는 개념에서 일종의 행동장애로서의 주의력 부족에 의한 과잉행동아동(ADHD)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Barkley, 1990). 한국은 아직까지도 행동장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연구 더 나아가 이들 아동에 대한 사회나 학급에서의 관심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수교육학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에서는 이러한 아동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은 한국의 어디를 가든 산재해 있다. 부모의 그릇된 자녀교육은 아동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서 아동의 기를 살린다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방임은 이러한 행동상의 문제아를 양산시키고 있다.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괴롭힘 현상은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미 그 영역은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문제 아동은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문제의 합산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문제되는 모든 아동을 행동·정서장애로 분류하여 특수교육을 받게 할 정도로 한국의 교육제도나 특수교육이 발달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II. 연구의 목적과 사용범위

아동의 행동과 태도를 발견하려는 이 척도의 개발은 아동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아동 자신에 의한 자기인지도), 타인을 통한 자신에 대한 평가(타인에 의한 자기인지도의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척도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단히 활발해졌다. 인문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구조에 대한 추구를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를 둘러싼 가족, 학교,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인간이 받는 영향의 정도를 밝히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인간의 구조와 영향의 정도를 밝힐 수 있는 도구는 오늘날과 같이 모든 개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문제성이 있는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는 임상심리학의 창시자 라고 할 수 있는 Witmer와 1880년대 비정상 행동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인차 연구를 한 Galton 등을 들 수 있다. Witmer는 Leipzig대학에서 실험심리학의 창시자 Wundt의 영향을 받아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들에게 문제해결 방법을 시도하였고, 1890년에 James Cattell은 개인차 연구로 “Mental Tests and Measurement”를 출판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격에 대한 측정법으로 정신측정검사(mental test)를 소개하였으며, 그리고 Binet는 1905년 최초의 체계적 아동용 심리검사를 제작하였다(박영숙, 1989, 7).

교육이나 행동의 조정을 위한 검사나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사용자, 응답자 등 세 집단을 만족시켜야 한다(이순목, 이봉건, 1995, 16). 개발자는 검사를 개발하고 판매하며 때때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기도 한다. 사용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응답자는 선택에 의하여, 지시에 의하여 또는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다.

현재,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인 [나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는 개발자의 수준에 있다. 질문지를 개발하려는 개발자 자신의 의도적 목적도 있으나 사용자와 응답자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사회복지사들은 오랫동안 아동의 문제행동과 함께 일을 해 왔으나 그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은 대단히 주관적 수준이었다.

1970년대부터 아동이나 가족의 문제를 인간과 그의 생태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연구의 관점도 질적인 것에서 양적인 분석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대부분 지금까지 선택하던 주관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다시 질적 분석의 사이클에서 있고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²⁾.

검사도구는 구조화된 수행과제(constructed performance task), 설문(questionnaire), 행동표본(structured behavior samples)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인다. 이 질문지는 위의 행동표본의 범주에 속한다. 행동표본이란 임상, 고용 및 교육환경에서의 의사결정에 관계된 개인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및 행동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표준화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표본을 뽑아 낸 것으로서 정의 된다(이순목, 이봉건, 1995, 21-22).

Piers-Harris는 그들의 자아개념척도를 개발하면서 아동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는 아동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이 아동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자아 혹은 부정적 자아는 교실에서나 가정에서 아동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2) 이에 대한 자료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의 1986년부터 1997년(통권 제8호부터 31호)까지, 그리고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1993)부터 제5집(1997)까지의 학술지의 제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보았다(1984, 1).

아동의 행동과 태도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인지도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 혹은 무의식적 행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인식의 수준이란 개인자체에서 생성되었다기 보다는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교육과 사회적 훈련은 점차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이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건전한 사회화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면 아동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가족, 학교, 사회 모두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McIntyre(1989 b, 5-6)는 아동자신도 조절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적 정서적 문제의 원인을 가족의 상호작용에서, 영양상태에서, 가족 내에서의 학대나 유기에서, 신체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뇌의 손상에서, 투약된 약에 대한 반응에서, 어떤 유전적 인자에서,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델로 인하여, 학습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네온싸인의 전자파로 인하여, 매일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리고 사랑이나 관심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행동들은 더 늦기 전에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의 전제조건으로 행동의 분류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들은 어느 특수한 경우에 발견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실이며 행동들이다. 요즘과 같이 학교폭력이나 괴롭힘 현상은 이러한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진단되나 이미 그 영역은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문제되는 모든 아동들을 행동·정서장애아동으로 분류하여서 특수교육을 받게 할 정도로 아동의 행동이 심각하거나 한국의 교육제도가 서구와 같이 특수교육이 발달치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처음(예비조사시)에는 대상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될 수 있으면 어린 아동에서부터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문제의 유형을 발견한다면 일찍 아동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뒤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예비조사시는 어린이집의 아동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저연령아동-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의 응답시 보조자(예를 들면 어머니, 부모, 교사)의 주관적 개입이 정확한 행동파악의 장애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3차 실시부터는 저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2-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자신에 의한 자기인지도와 타인에 의한 자기인지도의 정도를 밝힐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개발자) 아동 자신(응답자)는 물론 가족과 학교(사용자)가 아동의 행동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 격려가 가능토록 도와주며, 전체 또는 일부의 행동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의 변화와 치료를 위하여 전문적 개입(개발자 혹은 전문 사회복지사)이 가능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의 개발까지 연구하려는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한다.

III. 작업, 조사, 그리고 분석과정

1. 기초작업과정

아동의 행동과 학업의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각 학자마다 다르지만 최신의 편집으로 문제행동의 분류를 집대성한 것으로 McIntyre(1989a)의 "A Resource Book for Remediating Common Behavior and Learning Problems"가 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동행동 약15개의 조사표들(Checklists, McIntyre, 1989b, 19-35)과 이러한 조사표의 기본이 되는 수 천가지의 문제행동과 학업적응상의 곤란행위를 350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27개의 그룹으로 묶었다. 27개의 문제영역은 아래와 같다.

- 1) 학업성적(Academic Products)
- 2) 활동수준(Activity Level)
- 3) 공격적 행동(Aggressive Behavior)
- 4) 주의력 문제(Attentional Problems)
- 5) 권위와의 갈등(Authority Conflicts)
- 6) 수업과 관련된 학교와 학급에서의 행동 (Classroom/ School Behavior (Academic))
- 7) 수업이외의 학교에서의 행동(Classroom/School Behavior (Nonacademic))
- 8) 비행과 규칙위반(Delinquency/Rule Breaking)
- 9) 우울(Depression)
- 10) 학급분위기를 깨뜨리는 행동(Disruption of Classroom Routine)
- 11)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관심(Empathy/Concern for Others)
- 12) 가정에서의 행동(Home Behavior)
- 13) 미성숙(Immaturity)
- 14) 충동조절(Impulse Control)
- 15) 상호작용(Interaction)
- 16) 학습곤란(Learning Difficulties)
 - ① 혼란과 산만(Confusion/Disorganization)
 - ② 수학능력(Math)
 - ③ 기억력(Memory)

- ④ 읽기(Reading)
- ⑤ 시각적 인지/ 시각적 동작(Visual Perception/Visual Motor)
- ⑥ 글짓기 능력(Written Expression)
- ⑦ 기타 학습과 관련된 문제들(Other Problems)
- 17) 동기(Motivation)
- 18) 동작(Movement)
- 19) 신경증적 경향(Neuroticism)
- 20) 언어 구사력(Oral Expression)
- 21) 신체적 건강 관련사항(Physical Health Concerns)
- 22) 자기학대(Self-Abuse)
- 23) 자기보호(Self-Care)
- 24) 자기개념(Self-Concept)
- 25) 성적행동(Sexual Behavior)
- 26)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Unusual or Bizarre Behaviors)
- 27) 위축되거나 과억제된 행동 (Withdrawn or Overinhibited Behavior)등이다.

이러한 문제집단이 하나의 측정도구화되기 위하여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연구자인 개발자들이 지니고 있는 목적에 근거한 관심분야와 밝히고자 하는 행동의 영역,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분류를 위한 하위집단의 구성 등이다. 개발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의 배경을 지니고 특히 문제아동에 대한 임상적 경험을 한 연구자들로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분류 작업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할 이 질문지는 아동 자신의 자기행동에 대한 인지와 타인이 발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Brown and Hammill(1978)의 Behavior Rating Profile; Spivak & Spotts(1966)의 Devereux Child Behavior Rating Scale; Spivak & Swift(1975)의 Hahnemann Elementary School Behavior Rating Scale; Miller(1981)의 Louisville Behavior Checklist; 그리고 Walker(1983)의 Walker Problem Behavior Identification Checklist등을 참조하였다. 이중에서 Walker Problem Behavior Identification Checklist가 개발자들이 지니고 있는 욕구와 가장 근사하다고 사려되어 이 구성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 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항이 50

고 5개의 하위집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나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는 이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하위집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문항, 다시 말하면 Piers-Harris가 선택한 것과 같이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방향을 선택했다.

다음 단계는 이 질문지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속성, 즉 연령, 정신능력, 성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으나 응답자의 연령에 대한 것은 개발시 저연령의 아동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그러나 6학년까지의 수준이 포함되고, 문항의 배열이 골고루 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1학년에서의 한글해독의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일단은 초등학교2학년부터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질문지는 정신연령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응답자가 한글해독단계이면 이 검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 구성에 대한 합의후 위에서 제시한 27개의 문제영역과, Walker의 문제행동에서의 하위집단의 구성,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Piers-Harris의 자아개념척도와 자아개념척도로서 이미 한국에도 번역이 된바 있으며 구성상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Tennessee 자아개념척도 등의 하위집단을 참고하고 개발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1)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 - PS) 10문항, (2) 도덕적 윤리적 행동(moral and ethical behavior - ME) 14문항, (3) 자기자신에 대한 개인적 행동(personal matters behavior - PM) (4) 가족과 관련된 행동(family related behavior - FR) 11문항, (5) 사회적 행동(social attributes - SA) 11문항, (6) 정서적/감정적 안정도(emotional stability - ES) 14문항, (7) 학교 그리고 학습행동(school related factors/ intellectual and learning behavior -SI), 13문항, 그리고 (8) 친구와 관련된 행동(friendship/peers relationship - FS) 9문항 등 8개의 소집단척도(cluster scales)를 선택하였다. 다음에 논의 되는 조사와 분석과정은 SPSS Win 7.5를 사용하였다.

2. 문항의 선택에 대한 조사와 분석과정

우선 1997년 3월부터 표준화작업과 검사지의 작성을 위하여 McIntyre의 1989(a, b)년의 행동지표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각각의 문제행동 혹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문항들을 각각 50개씩 선택하여 200개의 행동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들을 행동목록중에서 공동요인으로 밝혀진 61문항으로 정리하고 문항작성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여 ‘예’, ‘아니오’의 단답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점수가 높아지고 부정적이거나 행동상의 문제가 보여지는 경우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았다.

제1차 조사는 1997년 4월4일에서 18일 사이에 부산과 대구에서 6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의 평균은 총점 61점에서 39.1로서 percentile이 75이상이다. 연령별로 보면 9세 아동들이 43점을 받아 전체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특히 9세의 여자아이들의 평균점수가 45.3이라는 것이다. 남자아이들에서는 11세의 아동들이 43.6 그리고 8세에서 42.8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13세의 남자아이들이 제일 낮은 점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아이들의 경우 별 차이가 없었다.

<표1> 제 1 차 조사의 결과

()안은 응답자의 수

연령 구분	8	9	10	11	12	13	계
총점(평균)	40.9	43.1	38.4	40.9	37.5	35.7	39.1
남(N)	42.8 (5)	36.5 (2)	38.0 (2)	43.0 (6)	35.4 (5)	33.8 (6)	38.5 (26)
여(N)	39.3 (6)	45.3 (6)	38.6 (9)	38.4 (5)	39.3 (6)	37.3 (8)	39.5 (40)
계	11	8	11	11	11	14	66

이러한 결과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대 점수와의 교차표를 아래의 <표2>에서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아동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41-45점에 몰려 있으며, 이는 이 질문지에 응답한 아동들의 57.4% 가 자신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표 2> 제1차 조사에서의 연령 대 점수의 교차분석표

점수 연령	20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0이상	계
8				1	2	6	2		11
9				1	1	4	2		8
10				5		5	1		11
11			1		4	3	3		11
12		1	1	2	2	3	2		11
13		1	3	2	4	4			14
계		2	5	11	13	25	10		66

제2차 조사는 1997년 5월 2일에서 13일 그리고 6월 13일에서 27일 사이에 다시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73명의 아동에게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고, 이를 다시 연령과 점수로 교차분석한 것이 <표4>이다. 전체적인 평균은 제1차 조사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자아이들의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제1차와는 달리 12세의 아동들에게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여자아이들의 경우 12세에서 44.8을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도 12세에서

41점을 나타냈다. 평균점수가 낮아진 것은 8세남자아동들의 점수가 29.3으로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대단히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외의 연령집단에서는 1차 실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3> 제 2 차 조사의 결과

연령 구분	8	9	10	11	12	13	계
총점(평균)	33.1	40.0	34.6	39.2	42.0	37.0	38.6
남(N)	29.3 (3)	38.4 (7)	38.5 (9)	37.4 (7)	41.0 (4)	35.0 (1)	37.6 (31)
여(N)	34.7 (7)	42.9 (9)	35.0 (3)	40.5 (11)	44.8 (4)	37.7 (7)	39.6 (41)
계	10	16	12	18	8	8	72

제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57.4%의 아동들이 40점 이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자기행동과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50점 이상의 긍정적 점수를 받은 아동도 9세와 10세에서 3명이나 있었다.

<표 4> 제2차 조사에서의 연령 대 점수의 교차분석표 2차

점수 연령	20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0이상	계
8	1	1	4			3	1		10
9		1	2	2	3		6	2	16
10		2	1	3		3	2	1	12
11		1	2	1	6	3	5		18
12					3	3	2		8
13	1			2	1	3	1		8
계	2	5	9	8	13	15	17	3	72

제1, 2차의 조사결과 연구자들은 전체적인 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의 <표 5>와 같이 항목들에 대한 다소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문항을 변경시킨 것은 주로 어린이의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내용의 편중이나 중복에 대한 삭제, 그리고 질문이나 내용의 명료화를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아동의 이해도를 높이며, 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조사자들이 얻고자 하는 질적 결과의 기대와 아동의 수준에서 실시하여야 된다(McLoughlin & Lewis, 1986, 15)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제3차 조사는 1997년 9월 10일부터 24일 사이에 192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1, 2차는 주로 사립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이번에는 공립초등학교 아동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6>이며 이를 다시 교차분석한 것이 <표7>이다.

아래의 <표7>에서 나타나듯이 20이하의 점수를 받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아동이 8명이나 되었으며, 50이상을 받은 아동은 없었다. 그리고 30점 이하 percentile로 치면 25이하에 소속되는 아동들이 38%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에 속하는 아동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차와는 달리 나이가 많은 아동집단에서 다소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표5> 1,2차 조사 실시 후 3차 문항의 내용변경에 대한 문항과 그 이유

문항번호	1, 2차 (을)	3차 (으로)	이 유
3	나는 공부시간에 떠든다고 야단을 자주 받는다	나는 공부시간에 떠든다고 꾸중을 듣는 편이다	어린이 용어로 바꿈
7	나는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	나는 당황할 때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	더듬는 버릇 유무보다는 안정성에 초점됨
9	나는 공부시간에 옆 아이와 장난을 쳐서 야단을 맞아도 여전히 장난을 한다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하여 잘생긴 편이다	응답이 편중됨
13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격도 나쁘다	나는 키가 작아서 고민한다	응답이 편중됨. 신체에 관한 문항 추가
14	나는 친구들이 싸우면 나서서 말리는 편이다	친구들이 싸워도 내 일이 아니면 말리지 않는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15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별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늘 관심있게 들어주신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19	나는 선생님이 새로운 것을 물어 보시면 먼저 '몰라요' 하고 대답한다	나는 선생님이 멀리에서 보이면 피한다	동일한 질문의 의도로 표현된 더 일반적 현실상황으로 대체함
22	나는 때로 이불에 오줌을 심다	나는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심 적이 있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25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32	친구들은 내가 재밌대라고 말한다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내 마음대로 하는 편이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34	부모님이 자주 싸운다	나는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35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부모님은 용기를 주신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님은 야단을 친다	응답의 방향성 조정
36	나는 무서운 영화를 보아도 그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무서운 영화를 보아도 그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39	나를 보고 애들은 짓궂다고 한다	나는 친구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40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함
48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똑똑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편이다	자기주장에서 타인과의 관계로 항목조정
51	나는 다른 애들과 싸우고 나면 기분이 좋다	나는 내 친구들보다 똥똥해서 고민이다	편중반응의 시정 및 신체자기개념항목추가

<표 6> 제 3 차 조사의 결과

연령 \ 구분	9	10	11	12	13	계
총점(평균)	32.7	31.5	33.3	32.4	32.3	31.9
남(N)	33.4 (5)	32.1 (14)	27.4 (19)	29.9 (35)	33.4 (36)	30.8 (109)
여(N)	32.1 (6)	30.6 (8)	34.7 (15)	33.3 (19)	32.6 (35)	32.9 (83)
계	11	22	34	54	71	192

<표 7> 제3차 조사에서의 연령 대 점수의 교차분석표

연령 \ 점수	20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0이상	계
9	1		3	5		1	1		11
10	1	4	5	5	4	2	1		22
11	1	3	7	13	4	5	1		34
12	2	12	9	15	6	6	4		54
13	3	8	14	22	14	10			71
계	8	27	38	60	28	24	7		192

3.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증

각 요인에 대한 분석과 각 소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성격/행동에 대한 기술을 밝히고자 하는 이 검사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행동상의 특징을 설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에게는 이러한 긍정적 행동이 지속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도와줌으로 인하여 보다 긍정적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 검사지가 앞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소집단척도를 중심으로 하였고, 문항의 평균은 문항통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는 난이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중간정도의 난이도가 변별력이 높으므로 가장 적합(염태호, 김정규, 1990, 12)한 것으로 보았다. 이 질문지에서 중간정도의 변별력이라 함은 응답자들이 '예' 혹은 '아니오'의 반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1'점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예'든 '아니오'든 맞으면 1점으로 컴퓨터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당도의 측정을 위하여 무응답은 제외시켰다.

1)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 - PS)

총10문항으로 구성된 이 소집단척도는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1,2,3차의 검사결과 점차 변별력을 가지며, 다소 증감을 상회하나 이것은 이 조사에 응한 아동들의 자신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1차나 2차조사시 매우 낮았으나 3차에서는 Cronbach Alpha 계수로 .67에 달하였다. 이들 문항중 가장 신체적 자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하여 잘 생긴 편이다]가 모든 조사를 통하여 평균점이 .3이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아동들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한 매스미디어와 비교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8> 신체적 자아에 대한 분석 결과

대상 구분	1 차	2 차	3 차
mean	.7258	.6639	.6604
SD	1.7443	2.6163	2.1318
F	29.1505*	4.5713*	10.1757*
Alpha	.0338	.2629	.6680

*p=.000 **p=.005

2) 도덕적 윤리적 행동(moral and ethical behavior - ME)

전체 14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적도는 3차의 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51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타당도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항목이 다른 집단 보다 많은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교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학급친구들이 자기의 비밀을 나에게만 털어놓는다]는 문항평균이 전체조사의 결과 .34에 머물렀다. 이것은 친구들간의 확신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친구들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9> 도덕적·윤리적 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대상	1 차	2 차	3 차
구분			
mean	.7040	.7489	.6390
SD	2.3171	2.4048	2.1818
F	7.3761*	5.0343*	9.6277*
Alpha	.4232	.2478	.5061

*p=.000 **p=.005

3) 자기자신에 대한 개인적 행동(personal matters behavior - PM)

자기자신과 관련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2차집단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가 상당히 낮은 것은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몇 개의 항목을 교정시킨 후의 3차는 .70으로서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총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문항들에서도 [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편이다]와 [나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놀리거나 비웃으면 화를 낸다]등에서 매우 낮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정적 자기평가는 때로 공격적이거나 위축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이 조사에 응한 많은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부정적 응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조사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표10> 개인적 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대상	1 차	2 차	3 차
구분			
mean	.6162	.6100	.5443
SD	1.9758	2.2385	1.9422
F	18.3131*	4.9733*	19.1490*
Alpha	.4427	.1964	.7027

*p=.000 **p=.005

4) 가족과 관련된 행동(family related behavior - FR)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약화된 현대라고 할지라도 아동들은 가족의 보호와 관심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에 대한 자기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의 분석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1차집단에서는 Alpha 계수가 매우 낮았으나 점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문항의 평균도 대부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가족에 대한 행동 분석결과

구분 \ 대상	1 차	2 차	3 차
mean	.5537	.6604	.5507
SD	1.4666	2.4048	2.6194
F	21.6121*	3.1873**	11.2834*
Alpha	.1398	.3390	.5404

*p=.000 **p=.0005

5) 사회적 행동(social attributes - SA)

아동은 어느 연령에 속하든지 학교라는 제도 속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회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이 집단척도는 특히 제2차조사시 많은 문제점을 보였고, 이 집단의 문항들이 가장 많은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Alpha 계수가 너무 낮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과연 질문지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비록 전체문항에 대한 평균이 높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하여 똥똥하다]와 같은 문항은 평균 .85이상으로 똥똥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 초등학교에 까지 확산된 몸매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12>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 대상	1 차	2 차	3 차
mean	.6501	.6667	.5871
SD	1.9552	1.9168	1.7326
F	17.9169*	10.2503*	10.5314*
Alpha	.5053	.0169	.6727

*p=.000 **p=.005

6) 정서적/감정적 안정도(emotional stability - ES)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몸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지닌다면 결국 아동의 정서적 감정적 안정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사회적 행동에 비하여 정서적인 면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척도는 1차조사시 알파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제외한다면 이 집단의 구성은 변인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정서적 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 대상	1 차	2 차	3 차
mean	.6439	.7560	.6295
SD	1.7443	2.6163	2.1318
F	16.9575*	2.4734*	5.7961*
Alpha	.1405	.4752	.6143

*p=.000 **p=.005

7) 학교 그리고 학습행동(school related factors/ intellectual and learning behavior -SI)

이 조사를 통하여 알파지수가 지속적으로 높고 안정적이었던 집단은 학교와 학습행동에 대한 것이었다. 전체 13문항으로 이루어진 집단척도는 비록 아동들은 [나는 학교만 다니고 싶지 학원이나 과외는 다니고 싶지 않다]는 문항에 대하여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나 [숙제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문항에 대하여는 반반으로 매우 갈등적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립학교의 아동에 비하여 공립학교의 아동들에게서 주의력 산만과 같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선생님 말씀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킨다'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14> 학교와 학습행동에 대한 결과분석

구분 \ 대상	1 차	2 차	3 차
mean	.6550	.6816	.5681
SD	2.6384	2.8581	2.7124
F	14.6613*	6.2548*	6.6984*
Alpha	.6892	.4617	.6818

*p=.000 **p=.005

8) 친구와 관련된 행동(friendship/peers relationship - FS)

전체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집단척도의 문항들에 대하여서는 다소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문항8번인[나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놀리거나 비웃으면 화를 낸다]가 '아니오'라고 개발자들은 일치하였으나 모든 조사의 응답자들의 반응은 '예'가 상대적으로 높았다(.78).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1차,2차조사의 결과 그리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아동들에게 있어서 친구와 관련된 행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즉 문항 2번에서는 사립학교의 아동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만 친구들이 싸워도 나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공립학교의 아동들은 이와 거의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2차의 알파지수는 매우 낮아서 이 집단변인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으나 3차조사시 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15> 친구와의 행동에 대한 결과 분석

대상	1 차	2 차	3 차
구분			
mean	.6768	.6265	.6163
SD	1.4455	1.7964	1.4135
F	13.5572*	7.0387*	23.1287*
Alpha	.1974	.1072	.6606

*p=.000 **p=.005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자들이 이 질문지와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 학회에 발표를 하는 것은 질문지의 작성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절차이며(Piers, 1989, 45-51)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질문지는 표준화를 위한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문제를 좀 더 감소하려는 노력의 하나이며,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문제를 일찍 발견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게 사회화된 아동이 앞으로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아동복지의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고, 3차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통하여 이 질문지가 지닌 상관관계를 통하여 변인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변인(문항)에 대한 신뢰도 혹은 소집단 척도간의 타당도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몇 번의 시도는 점차 높은 타당성을 보여주게 되었고 결국은 이 질문지가 일종의 지속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몇 개의 문항에는 변경의 여지가 있었다. 이것은 개발자들이 시도한 목적과 응답자들의 반응간의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이 질문지가 확정되어서 표준화되기까지 계속 시도를 하여야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개발자들의 경험으로 볼 때, 본 질문지는 문항수가 61문항으로 응답자인 초등학교 아동이 집중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부정적 측면 까지도 쉽게 노출시켜 응답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질문지에 대한 현재의 작업은 소집단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일부 문항에 대한 재조정과 소집단 척도의 문항구성에 대한 재토의가 요구된다.
- 2) 실시절차에 대한 과제로서 개인과 집단의 실시에 따르는 보고형식이나 사용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 3) 확정적인 수준에서의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T점수의 분포의 확정과 Percentile의 분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 4) 작업표와 결과표(work sheet & report)작성을 위한 전산화 혹은 수작업 과정이 개발·확정되어야 한다.
- 5) 항목 혹은 소집단척도에 대한 해석의 기준과 점수에 따르는 개인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에서 밝힌바 있는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한 해석과 도움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6) 이 질문지가 표준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근거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 7) 현재의 조사(1, 2, 3차)는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이것이 한국의 평균아동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개발자들은 전국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 8) 이러한 질문지의 사용을 위하여서는 개발자들이나 앞으로 사용할 사용자들의 윤리적 자세에 대한 지시사항 혹은 기본적인 요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질문지가 학급이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의 척도기준으로서 부모들이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이해 혹은 해석 등을 위한 기본적 전제 내지 제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조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선화교수연구실(051-510-2120 /FAX겸용)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설문지

제 3 차 나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어린이들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 분류를 위하여 쓰여지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이와 초등학교 학년을 적고, 이름은 적지 마세요.

대답을 할 때 '예' '아니오'에 표시만 하면 됩니다.

나이: _____ 학년: _____ 여자: _____ 남자: _____

- 예 아니오 1. 똑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아이는 칭찬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해도 가만이 있는다
- 예 아니오 2. 나는 다른 아이들과 부딪혔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잘한다
- 예 아니오 3. 나는 공부시간에 떠든다고 꾸중을 듣는 편이다
- 예 아니오 4. 나는 엄마가 내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는 편이다
- 예 아니오 5. 나는 때로 이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 예 아니오 6. 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편이다
- 예 아니오 7. 나는 당황할 때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
- 예 아니오 8. 나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놀리거나 비웃으면 화를 낸다
- 예 아니오 9.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하여 잘 생긴 편이다
- 예 아니오 10. 나는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다
- 예 아니오 11. 나는 시험시간에 친구의 답을 본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 예 아니오 12. 부모님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라고 믿는다
- 예 아니오 13. 나는 키가 작아서 고민한다
- 예 아니오 14. 친구들이 싸워도 내 일이 아니면 말리지 않는다

- 예 아니오 15. 부모님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늘 관심있게 들어주신다
예 아니오 16. 나는 꿈속에서 살고 싶은 때가 많다
예 아니오 17. 나는 학교만 다니고 싶지 학원이나 과외는 다니고 싶지 않다
예 아니오 18.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서슴치 않고 묻는다
예 아니오 19. 나는 선생님이 멀리에서 보이면 피한다
예 아니오 20. 나는 손톱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
예 아니오 21. 나는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22. 나는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적이 있다
예 아니오 23. 친구들은 내말을 재미있어 한다
예 아니오 24. 나는 수업시간에 주어진 공부를 조용히 하는 편이다
예 아니오 25. 우리 부모님이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예 아니오 26. 나는 한 번 울면 끝장을 본다
예 아니오 27. 나는 화가 나면 물불 안가리고 마음대로 한다
예 아니오 28. 나는 칭찬보다는 야단을 많이 받는 편이다
예 아니오 29. 나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서 노는 것이 더 좋다
예 아니오 30. 아이들이 나를 놀려도 상관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31. 어머니(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한다
예 아니오 32.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내 마음대로 하는 편이다
예 아니오 33. 나는 음식을 가려먹지 않고 골고루 잘먹는다
예 아니오 34. 나는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35.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님은 야단을 친다
예 아니오 36. 나는 무서운 영화를 보아도 그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
예 아니오 37. 나는 비밀을 얘기할 친구가 한두명은 있다
예 아니오 38. 우리집이 좀더 부자였으면 한다
예 아니오 39. 나는 친구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다
예 아니오 40.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다.
예 아니오 41. 숙제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아니오 42. 어머니가 맞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 한다
예 아니오 43. 나는 우리집에 가면 재미가 있다
예 아니오 44. 나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45. 선생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잘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예 아니오 46. 나는 부모님이 일을 시키면 하기 싫어서 불평한다
- 예 아니오 47. 나는 울고 싶지만 잘 참는다
- 예 아니오 48. 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편이다
- 예 아니오 49. 나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선생님 말보다는 거기에 더 관심이 간다.
-
- 예 아니오 50. 나는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는다
- 예 아니오 51. 나는 내 친구들보다 뚱뚱해서 고민이다
- 예 아니오 52. 나는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끝까지 풀려고 질문을 하는 편이다
- 예 아니오 53. 나는 색깔이 예쁜 과자나 사탕을 좋아한다
- 예 아니오 54. 나는 애들과 싸울 때 화가 나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온다
- 예 아니오 55.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를 정리한다
- 예 아니오 56.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숙제를 한다
- 예 아니오 57. 나는 때로 혼자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예 아니오 58. 나는 명랑하다
- 예 아니오 59. 아침마다 어머니가 깨워 주어야 일어난다
- 예 아니오 60. 집을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 예 아니오 61. 학급친구들이 자기의 비밀을 나에게만 털어놓는다

끝까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